

동사성 명사의 속격 보충어에 대한 의미통사적 제약

전 종 섭
한국의국어대학교
(jongsupjun@korea.com)

1. 동사성 명사 보충어의 격 표시

- 국어의 경동사 구문 (Light Verb Construction; LVC): 동사성 명사 (Verbal Noun; VN)와 *하-*의 결합에 따라 True LVC와 Incorporated LVC로 구분 (J. S. Jun 2003, 2006)

- (1) a. True LVC: 대격 보충어 (○), 속격 보충어 (○)
김 박사가 양자역학-을/의 연구를 했다
b. Incorporated LVC: 대격 보충어 (○), 속격 보충어 (×)
김 박사가 양자역학-을/*의 연구했다

1.1. '명사구 내의 속격 (adnominal genitive)'을 받지 않는 동사성 명사의 보충어

- '명사구 내의 속격'을 받지 않는 보충어: 대격 표시된 보충어 외에도 '명사구 내의 속격'을 받지 않는 모든 보충어의 문제 (i.e. complements with non-nominal case)

- (2) a. True LVC: 후치사구 보충어 (○), 후치사-속격 보충어 (○)
인호는 미나-와/와의 합석을 했다
b. Incorporated LVC: 후치사구 보충어 (○), 후치사-속격 보충어 (×)
인호는 미나-와/*와의 합석했다
- (3) a. John-wa Bill-to aiseki-o shita (Japanese)
J-TM B-with table.sharing-ACC SURU-Pst
'John shared a table with Bill'
b. John-wa [_{VNP} Bill-to-no aiseki]-o shita
J-TM B-with-GEN table.sharing-ACC SURU-Pst
c. John-wa Bill-to aiseki-shita
d. *John-wa Bill-to-no aiseki-shita
GEN
(Grimshaw & Mester 1988, 206)

- 격 표시와 의미역 표시의 국지성 문제 (locality problem): '명사구 내의 속격 (adnominal genitive)'을 받지 않는 True LVC에서 발생

- (4) a. 김 박사가 양자역학을 연구를 했다
b. 인호는 미나와 합석을 했다
c. John-wa Bill-to aiseki-o shi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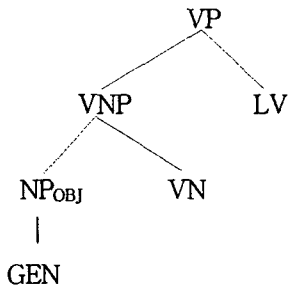
- 격 표시와 의미역 표시의 국지성 문제에 대한 논의: H-D Ahn (1991), J. Yoon (1991) Grimshaw & Mester (1988), Y-S Lee (1992), J. S. Jun (2003, 2006), *inter alia*

(5) 논항 전이 (argument transfer, Grimshaw & Mester 1988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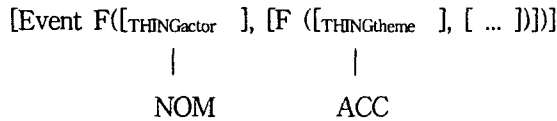
- a. VN (x, y, z)
- b. LV () <ACC>
- c. VN (z) + LV (x, y) <ACC>

(6) 통사격과 의미격의 교체 (J. S. Jun 2003, 2006):

a. 통사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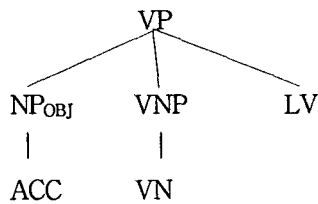


b. 의미격



- J. S. Jun (2003): (4a)가 (6a)의 통사 구조에서 (6b)의 의미격을 받아 도출되거나 (7)의 통사 구조에서 바로 통사적 대격을 받아 도출된다고 설명

(7)



1.2. 동사성 명사의 속격 보충어

- True LVC의 속격 보충어: (6a)에서 통사적으로 도출되며, 격 표시와 의미역 표시의 국지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(cf. Hindi LVC, J. S. Jun 2003, 2006).

- (8) a. ilaa-ne mohan-kaa apmaan kiyaa
 I-ERG M-GEN(M) insult-NOM(M) do-Perf-M
 'Illa insulted Mohan'

- b. ilaa-ne mohan-kii prašamsaa kii
 I-ERG M-GEN(F) praise-NOM(F) do-Perf-F
 'Illa praised Mohan'
 (T. Mohanan 1997, 454)
- (9) a. [_{Clause} ilaa-ne [_{VNP} mohan-kaa apmaan] kiyaa]
 GEN
 b. * [_{Clause} ilaa-ne mohan-ko [_{VNP} apmaan] kiyaa]
 ACC
- (10) a. [_{Clause} ilaa-ne [_{VNP} mohan-kii prašamsaa] kii]
 GEN
 b. * [_{Clause} ilaa-ne mohan-ko [_{VNP} prašamsaa] kii]
 ACC

- 국어 경동사 구문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의문점:

① VN의 보충어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짐

- (11) a. 김 박사가 요즘 양자역학의 연구를 한다
 b. (?)김 박사가 요즘 물리학의 연구를 한다
 c. ??김 박사가 요즘 과학의 연구를 한다
 d. ??/*김 박사가 요즘 수학의 연구를 한다

② 보충어가 일정한 경우 VN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짐

- (12) a. 김 박사가 요즘 양자역학의 연구를 한다
 b. (?)김 박사가 요즘 양자역학의 공부를 한다
 c. 김 교수가 요즘은 (국어 대신) 영어의 연구를 한다
 d. (?)김 교수가 요즘 (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려고) 영어의 공부를 한다

③ Incorporated LVC에서는 속격 보충어가 허용되지 않음

- (13) a. 김 박사가 양자역학을 연구했다
 b. *김 박사가 양자역학의 연구했다

2. 어휘적 합성 vs. 구-구성

2.1. 어휘적 합성 (lexical compound)

- 어휘적 합성:

- 양자역학의 연구는 양자역학연구를 통사적으로 잘못 분석한 결과
- '양자역학 + 연구 = 양자역학연구' (어휘부 합성)

- 어휘적 합성 가설의 장점(?): 연구하다가 어휘부에서 '연구 + 하다 = 연구하다'로 합성된 단어라고 가정할 때 (cf. J. S. Jun 2003, T. Mohanan 1997, 채희락 1996), 양자역학 같은 합성어가 하-와 재합성될 가능성을 막아주면, (13b)가 틀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. (그러나, '양자역학 + 하다 = 양자역학하다'의 재합성을 막을 형태론적 동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임)

- 어휘적 합성 가설의 문제점/어려움

① 보충어와 VN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

(14) ?김 박사가 요즘 양자역학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

② 보충어 자체가 여러 단어의 합성어가 될 수 있음

(15) 김 박사는 [인간 배아 줄기 세포 테라토마]의 연구를 하고 있다

③ 보충어가 또 다른 VNP가 될 수 있음

(16) 김 박사는 [VNP [인간 배아 줄기 세포 테라토마] 생성]의 연구를 하고 있다

④ 보충어가 통사적으로 완결된 내부 구조를 갖춘 절이 되는 경우 어휘적 합성으로 보기 어렵지만,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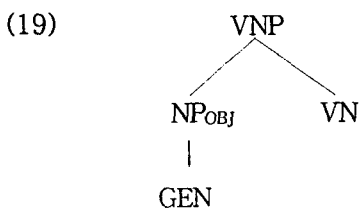
(17) a. 김 박사가 [지진이 발생한 원인]의 연구를 했다
 b. 김 박사는 이번 국제 줄기 세포 학회에서 [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만들 때 난자를 손상시키지 않고 쥐어짜기 기술을 이용하여 난자핵을 제거한 경우 배반포기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용이하다는 주장]의 발표를 했다

⑤ 동위 접속의 문제

(18) 인호는 이 교향곡의 작곡과 지휘를 했다

2.2. 구-구성 (phrasal composition)

- 아래 (19)와 같은 VNP-구성은 앞서 언급한 어휘적 합성의 문제점을 해결



- 보충어의 속격 표시는 경동사 *하-*와는 무관하게 보임: 통사적 격 할당 (i.e. adnominal genitive)

- (20) a. Aspectual Nominal Construction
[김 교수의 양자역학의 연구] 중, 학자들의 초끈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
b. VNP가 주어로 사용
[영어학의 연구]는 어렵다
c. VNP를 목적어로 사용
인호는 [영어학의 연구]를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
d. 여격 표시된 VNP (혹은 후치사의 목적어로서의 VNP)
인호는 [영어학의 연구]에 청춘을 바쳤다

3. 동사성 명사의 보충어에 대한 의미적 제약

3.1. 구체성 (specificity)

- 의미적 구체성 혹은 특정성: 의미 성분 (features / attributes)의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함

- (21) a. 구체성의 증가: 과학 < 물리학 < 양자역학
b. 수용성의 증가: ??김 박사가 과학의 연구를 한다
< (?)김 박사가 물리학의 연구를 한다
< 김 박사가 양자역학의 연구를 한다

- 강제된 의미 해석 (coerced reading): (22a)는 '어학 공부'의 의미일 때는 비문에 가깝지만, '영어학의 연구'라는 의미일 때는 수용성이 높아진다.

- (22) a. (??)김 교수가 영어의 공부를 한다
b. (?)김 교수가 영어의 연구를 한다
c. 김 교수가 영어 음운 체계의 연구를 한다

- *하-*와 무관한 구체성 문제: (23)~(26)

- (23) Aspectual Nominal Construction
a. ??[인호의 영어의 공부] 중,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었다
b. [김 교수의 양자역학의 연구] 중, 초끈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

- (20b, c, d)의 경우 보충어에 대한 대격 표시가 불가능한 까닭에 이 경우의 속격 표시를 순수하게 통사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, 아래 (24)~(26)의 자료들은 속격 표시를 위해 통사적인 조건 외에도 의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.

- (24) VNP가 주어로 사용
 - a. *[영어를 공부]는 어렵다
 - b. ?[영어의 공부]는 어렵다
 - c. [영어학의 연구]는 어렵다
- (25) VNP를 목적어로 사용
 - a. *인호는 [영어를 공부]를 20 대의 목표로 삼았다
 - b. ??인호는 [영어의 공부]를 20 대의 목표로 삼았다
 - c. 인호는 [영어학의 연구]를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
- (26) 여격 표시된 VNP (혹은 후치사의 목적어로서의 VNP)
 - a. *인호는 [영어를 공부]에 청춘을 바쳤다
 - a. ??인호는 [영어의 공부]에 청춘을 바쳤다
 - b. 인호는 [영어학의 연구]에 청춘을 바쳤다
 - c. 김인호 교수는 [개미뿔다리신진대사의 분석]에 일생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개미뿔다리박사로 기억되게 되었다

- (24b), (25b), (26b)는 (27)과 같이 영어공부가 되면 어법에 맞지만, 이는 앞 절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어휘적 합성 가설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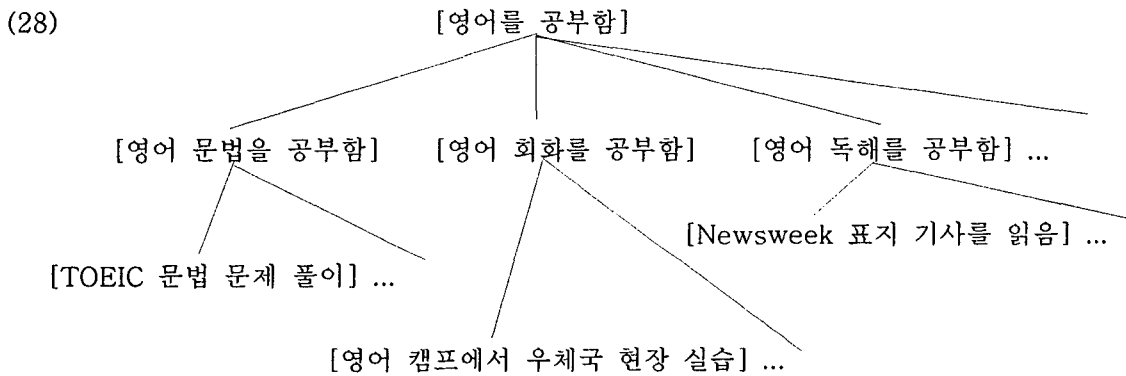
- (27) a. 영어공부는 어렵다
- b. 인호는 영어공부를 20 대의 목표로 삼았다
- c. 인호는 영어공부에 청춘을 바쳤다

3.2. 구체성의 문법적 제약으로서의 적절성

- 문제: 구체성을 문법적 제약의 일부로 보기 위해서는 '구체성의 한계'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; i.e. *How specific should the VNP complement be in semantic contents? How do we know whether or not a VNP complement is specific enough in meaning?* (cf. Kuno's (1987) use of [\pm specific] as a relevant feature in grammar)
- 기존 형식 문법의 입장에서 구체성을 문법적 제약의 일부로 보기는 쉽지 않지만,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는 구체성을 문법적 제약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함: 대표성 (representativeness)이 높은 것은 형식적이며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익숙하기 때문이며, 이것이 인지적 판단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증거가 많다.
 - Rips, Shoben & Smith (1973): semantic verification task (RT)
 - "13 is an odd number" > "57 is an odd number"
 - "A mother is a female" > "A waitress is a female"
 - Tversky & Gati (1978): similarity judgment task
 - "How similar is Russia to Poland?"
 - < "How similar is Poland to Russia?"

※ 추리와 판단내리기 (reasoning & decision making)에 있어서의 기술적 모형 (descriptive model)과 규범적 모형 (normative model)의 차이

- 인지과학적 관점에서는 문법성의 판단에도 기술적 모형과 규범적 모형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, 여기에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.
- 구체성을 형식 문법의 틀 안에서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형 격자 (type lattice) 상에서 기본 수준 범주 (basic level category)를 기준으로 상위 유형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하위 유형은 구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: 언어 습득 과정에서 기본 수준 범주의 어휘들이 다른 어휘들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증거가 있음 (Mervis 1983) → 즉, 기본 수준 범주의 어휘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의미 직관이 존재
- 이론적/경험적 이득 1: 사건 (event) 간의 위계를 구체성에 바탕을 두고 설정 가능하며 이를 문법적 제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음 → (17)의 예문을 자연스럽게 설명 + (12)처럼 보충어가 일정한 경우에도 VN에 따라 수용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



- (29)
- ??인호가 영어의 공부를 했다
 - ?인호가 영어 문법의 공부를 했다
 - ?인호가 영어 회화의 공부를 했다
 - ?인호가 영어 독해의 공부를 했다
 - (?)인호가 TOEIC 문제 풀이의 연습을 했다
 - (?)인호가 Newsweek 커피스토리의 정독을 했다

- 이론적/경험적 이득 2: 한정성 (definiteness)이나 TOPIC/FOCUS 등이 문법적 제약의 일부로 도입되는 문제를 보편 문법 (Universal Grammar; UG)의 틀 안에서 설명 가능

- (30)
-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[-definite]
 - *There is the book on the table [+definite]

- (31b)는 Chomsky (1973)가 지정주어조건 (Specified Subject Condition)으로 설명했으나, Kuno (1987)는 'TOPIC만이 이동할 수 있다'는 제약을 문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설명

- (31) a. It is **Marilyn Monroe** who I want to buy a portrait of
 b. *It is Marilyn Monroe who I want to buy **Mary's** portrait of
 c. This is the story that I haven't been able to get **Mary's** version of
 (Kuno 1987, 12-13)

3.3. 또 다른 가능성: 의미역

- VN의 보충어는 외부 논항인 행동주 (Actor)나 경험자 (Experiencer)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미역을 할당 받는다.
- 아래 (32)는 구체성이 매우 높은 보충어조차도 대상 (Theme)이나 기원 (Source)을 제외한 모든 의미역에서 VN의 속격 보충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.

- (32) a. 대상 (Theme)
 김 교수가 양자역학의 연구를 했다
- b. 피해자/수동자 (Patient)
 *그 건달이 [길에서 쭈쭈바를 먹던 초등학교]의 구타를 했다
- c. 수혜자 (Benefactive) / 목표 (Goal)
 *인호가 꽃다발을 [어제 월드컵 응원하면서 만난 여학생]에게의 선물을 했다
 (cf. *인호가 꽃다발의 [어제 월드컵 응원하면서 만난 여학생]에게의 선물을 했다)
- d. 도구 (Instrument)
 *인호가 선물을 [어제 월드컵 응원이 끝나고 구입한 상자]로의 포장을 했다
- e. 장소 (Locative)
 *인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[새로 산 컴퓨터 바탕 화면]에의 배치를 했다
 (cf. ??인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[새로 산 컴퓨터 바탕 화면]의 배치를 했다)
- f. 기원 (Source)
 ?인호가 미국에서의 귀국을 했다

4. 결론

- 전통적으로 속격은 통사적 제약에 의해서만 부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다양한 의미적 제약이 존재함을 확인
- 속격의 부가에 관여하는 의미적 제약 중 '구체성'은 VN의 보충어 뿐 아니라 VN 자신에게도 제약을 가함
- 계속적으로 연구할 과제: 구체성/의미역 등을 적절한 이론적 틀 (예: 개념의미론, HPSG, LFG)에 적용하는 문제

참조 문헌>

- 채희락 (1996). "'하--'의 특성과 경술어구문," <어학연구>, 32-3, 409-476.
- Ahn, Hee-Don (1991). *Light Verbs, VP-Movement,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*. Ph.D. Dissertation, Univ. of Wisconsin-Madison.
- Chomsky, Noam (1973). "Conditions on transformations," in S. R. Anderson & P. Kiparsky (eds.), *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*, pp. 232-286. New York: Holt, Rinehart & Winston.
- Grimshaw, Jane & Armin Mester (1988). "Light verbs and Θ -marking", *Linguistic Inquiry* 19, 205-232.
- Jun, Jong Sup (2003). *Syntactic and Semantic Bases of Case Assignment: A Study of Verbal Nouns, Light Verbs and Dative*. Ph.D. Dissertation, Brandeis University.
- Jun, Jong Sup (2006). "Light verbs in Korean and Hindi: the locality problem as an epiphenomenon of the surface case resolution," *Language and Linguistics* 37, 209-232.
- Kuno, Susumu (1987). *Functional Syntax: Anaphora, Discourse and Empathy*. Chicago: Univ. of Chicago Press.
- Lee, Young-Suk (1992). "Case and word order variations in nominal clauses," *Language Research* 28-2, 359-380.
- Mervis, C. (1983). "Acquisition of a lexicon," *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* 8, 210-236.
- Mohanan, Tara (1997). "Multidimensionality of representation: NV complex predicates in Hindi", in Alex Alsina, Joan Bresnan & Peter Sells (eds.), *Complex Predicates*, pp. 431-471. Stanford: CSLI Publications.
- Rips, L. J., E. J. Shoben, & E. E. Smith (1973). "Semantic distance and the verification of semantic relationships," *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* 12, 1-20.
- Tversky, A. & I. Gati (1978). "Studies of similarity," in E. Rosch & B. B. Lloyd (eds.), *Cognition and Categorization*, pp. 81-99. Hillsdale, N.J.: L. Erlbaum Associates.
- Yoon, James Hye Suk (1991). "Theta operations and the syntax of multiple complement constructions in Korean", in Susumu Kuno, et al. (eds.), *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*, pp. 433-445. Cambridge, MA: Harvard Univ.